

시론



주홍
치유예술가

“오월어머니들의 그림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되고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삶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2022년부터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매주 수요일 그림농사 수업을 하면서 나는 이런 말로 상처 깊은 어머니들을 응원하고 치유의 세계로 안내했다.

“오메, 우리 미술선생님은 별말을 다 하요! 세계적으로 겁나게 유명한 작가들이 비엔날레에서 전시하니 국민학교도 못 나온 내 그림이 거기 걸리겠소?”하면서 오월어머니들은 말도 안되는 허망한 꿈을 꾸다고 하셨다. 그림 수업시간에 어머니들을 응원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씨앗이 돼 진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장 중앙에 322점이 걸렸다.

한 번에 모두 보여줄 수 없어서 2회로 나눠 전시되고 있다. 9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 강해중, 김옥희, 김점례, 이숙자, 임근단, 임금자, 장명희, 장삼남, 정귀순, 한양님, 10명이 그린 161점이 전시됐고 10월13일부터 11월5일까지 김순식, 김형미, 박순금, 박화순, 안성례, 윤삼례, 윤화숙, 이명자, 이정덕, 주암순, 11명이 그린 161점으로 교체 전시된다. 21명의 오월어머니들이 매주 모여 그림을 그리며

말의 씨앗

함께 했던 시간의 축적이다.

그림을 그리며 ‘기억’하고, 울고 웃고 정을 나누며 서로 ‘공감’했고,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고 비슷한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사회적 ‘연대’를 하며 나아가는데 그림 그리기와 전시회는 큰 힘이 됐다.

2022년 메이홀에서 오월어머니들의 그림 농사라는 제목으로 첫 전시를 했을 때, 개막식에 오신 오월어머니들 한 분 한 분께 참여작가 이름표를 목에 걸어드렸다. 이름표를 보며 울먹였다. “내 이름으로 살아본 것이 처음이네. 화가도 아닌 나에게 이름표를 걸어주는 눈물이 나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존재하게 하는 의미. 그때 90세가 넘은 진도 출신 한양님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오목가슴을 치면서 살아오셨는데 가슴에 꽉 박힌 대못이 빠진 느낌이라고 하며 판소리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셨다. 예술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다. 카타르시스다.

‘말의 힘’과 ‘그림의 힘’은 세다. 반복하면 현실이 된다. 언젠가 내가 했던 말이 갑자기 이뤄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

오월어머니들 미술수업에 격려의 마음으로 했던 말들이 현실이 돼 본전시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는 장면이 그렇다. 싱가포르의 호추니엔(Ho Tzu Nyen, 197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전시를 준비하며 오월어머니집에 찾아왔다. 건물 2층에 가득 차 있는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들을 보고 큰 감명으로 참여가 결정된 것이다.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변화다.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가 팔다리가 없는 고대 조각의 파편 ‘아폴로의 토르소’를 바라보다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의 내적 질문을 쓴 시의 마지막 줄이다. 그러니까 고대의 작품이 말한 것을 시인의 영감으로 받아 적은 시다. 1908년에 발표된 릴케의 시.

〈고대아폴로의 토르소〉
안에서는 눈망울이 무르익어 갔을,
그알 수 없는 머리를 우리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뒤틀려 박히기만 하 빛을 발하고 있는
그의 몸통이라는 커다란 가스등처럼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잊고 서야 어찌 그 가슴의
곡선이 너의 눈을 부시게 할까, 또 살소리 뒤틀린
허리로 부터 어찌 한 가닥 미소가
생식을 품은 기운대 쪽으로 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돌덩이는 두 어깨의 투명한
추락 아래 짙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으리라.
또 맹수의 가죽처럼 그렇게 반짝이지도 못했으리라.

또 별처럼 그렇게 제 모든 가장자리에서 빛을
내지도 못했으리라. 너를 바라보지 않는 곳이란
한 군데도 없으니까.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선생님, 미쳤어요!”
“미쳤다고?” “네 하늘이 미쳤어요.”
쉬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하늘바라기를 하다 말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늘이 미쳤다’는 말도 그냥 가만히 내뱉는 것이 아니었다. 파란 하늘을 마주한 느낌을 가장 멋진 말로 표현해 냈다는 듯, 아이의 표정과 몸짓이 의기양양이다.
“그렇구나! 그런데 하늘이 어떻게 미쳤지?” “그냥요...” “그냥?” “네! 파래요, 엄청 파래요.” “으음, 그렇구나. 하늘이 엄청 파랗구나.” “하늘이 바다 같아요. 출렁이는 파란 바다!” “파란색 물감으로 쓱쓱 색칠해 놓은 그림 같아요!” “파란 하늘을 보니까 마음도 파래지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어떻게 파랗냐?” “마음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셨잖아.” “맞아. 나도 오늘은 파란 마음! 기분이 좋아!” “나는 고양이 마음이다. 아옹!” “나는 강아지, 멍멍!” “하하하!” “까르르르!”
‘미쳤어요!’라는 말에 건넨 ‘어떻게?’는 아

문해력을 높이려면

이들의 말문을 열어주었다. ‘그냥요’가 ‘엄청 파래요’가 되고, 출렁이는 바다가 되고, 파란색 물감으로 쓱쓱 색칠해 놓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 가득 파란 하늘이 스며들어 왁자지껄,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튀어 올랐다.

“소름” “할~” “대박!”
텔레비전을 보며 마음이 씩씩해질 때가 있다. 맛에 대한 평가도, 음악에 대한 느낌도, 그림이나 풍경을 마주한 감상도 다르지 않다. 도대체 뭐가 미쳤고, 또 무엇이 소름이탄 말인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건지 커다란 자막으로까지 띄우는 걸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하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표현 역시 언어의 생명력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이 지나치게 단순해지고 획일화되고 있다. 달콤한지, 고소한지, 담백한지, 새콤한지.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떠오르는 맛인지. 추억 속, 함께 했던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달콤해지는 음악인지, 각자의 추억과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야 할 말들이, 어느 사이 ‘소름’이 되고 ‘할~’이 되고 ‘대박’이 되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는 말에, ‘어떻게 위로를 심심하게 드리느냐’고 반문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심심하다’는 말의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심심하다’에는 ‘마음의 표현 정도

가 매우 깊다’는 뜻의 ‘심심(甚深)하다’도 있다. ‘심심한 위로’에서의 심심은 지루하거나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라 깊고 간절한 위로라는 뜻이다. 단순히 웃어넘길 수 없는, 우리 사회 문해력에 대한 경고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글에 담긴 의미까지 헤아리는 힘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품어야 할 생존이자 자립의 힘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는 내 세상의 한계다”라고 말했듯, 다양한 말을 구사하는 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 풍부한 언어는 아이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든든한 날개가 된다.

“으음, 그렇구나 어떻게?”
문해력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다. 문해력의 시작은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문제집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 문장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진득하게 앉아 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습이다.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기다려주는 파스 한 눈길일 절실한 계절, 가을이다.

社說
GGM의 노사 갈등, 대화와 협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노사간 견해차가 갈등으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노동 당국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GGM 노동조합이 제기한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측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에 GGM은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노동 당국의 조사와 사법절차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번 노동 당국의 조사와 수사절차는 무엇보다 그간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자체만으로 GGM을 노조 탄압의 사업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행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당시 GGM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존중하고,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노동 당국은 각 사안의 발생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본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GGM이 어떤 취지에서 출범했는지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GGM은 지역사회와 정부, 주주,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노사 상생과 사회적 대타협, 지역경제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처럼 GGM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용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구현하는 기대를 안고 있다.

이처럼 노동 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이 자칫 광주형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GGM의 노사 갈등은 무엇보다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노사는 GGM 출범 당시 함께 다짐한 사항을 제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인력 공백은 행정서비스 하락이다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과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휴직·결원 등에 따른 인력 공백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인력 확보 등에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국행정연구원원이 발표한 ‘2025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61.9%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가 11.3%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상황도 비슷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가 실시한 ‘2026 조직문화인식 개선 설문조사’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중 78.8%가 민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87.9%에 달했다. 서귀지부가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4%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당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휴직

이나 결원까지 발생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인력 충원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물론 지자체들도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광산구는 휴직자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0명을 채용·배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기준 광산구청 공무원 정원인 1천299명 가운데 현원은 1천223명으로 76명이 적었다. 대체인력 채용과 업무 분장 조정만으로 인력 공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적정 인력과 공정한 업무 분배,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나눠 떠안는 땀질식 처방은 더 이상 안 된다. 인력 공백은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다카시 광장

침묵을 깨고

김방순

쭈뼛 눌러 다스리고 시간을 건디더니
목언수행을 마치자마자 와락 쏟아내는
눈부신 저 언어들



※ 시작노트
화순 고인돌 축제장은 선사시대의 돌장식과 가을 다채로운 꽃이아기로 사람들이 물려들고 있다. 이번 축제는 꽃길 따라 만나는 천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세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다.
이곳 화순에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쁨으로 출렁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디카시인협회 제공

현장칼럼



박춘천
담양소방서장

청명한 하늘과 형형색색의 단풍이 산으로 발걸음을 이끄는 계절이다. 자연을 즐기는 산행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지만 준비 없이 나선 길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을 산은 기온 변화가 크고 해가 짧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엽에 가려진 돌과 나무뿌리, 젖은 바위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가을산행, 정상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귀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발발을 잘 살펴야 한다. 익숙한 산이라도 방심하거나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도록 일정을 잡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산행 경로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 등산화를 착용하고 여벌 옷과 물, 간식, 손전등을 챙기며 휴대전화 충전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을 찾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음주 산행을 삼가고 충분히 쉬며 하산할 때는 보폭을 줄이고 천

천히 걸어야 한다. 날씨가 나빠지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정상을 눈앞에 두었더라도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길을 잃었다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산악위치표지판에 적힌 위치 정보나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된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산행의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 꼼꼼한 준비와 작은 주의로 아름다운 가을 산행을 안전한 추억으로 남기기를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